



보도자료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기획담당관	김종수	2133-6610
기획조정팀장	김현아	2133-6612
담당자	김수정	2133-6614
사무국장	유연숙	3396-4891
자치팀장	김윤희	3396-4892
담당자	김성민	3396-4896
자치행정과장	송광남	2133-5800
행정팀장	김현정	2133-5802
담당자	김도영	2133-5807

서울시 구청장협의회

행정국 자치행정과

사진없음 사진있음 매수 : 4매

서울시, 무차별범죄 대응위해 자치구와 함께 해결방안 모색

- 23일(수) 10시30분, 오세훈시장 주재로 무차별범죄 대응을 위한 구청장 회의 개최
-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통한 CCTV 및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대응방안 논의
- 셉테드 지역확대, 공원 등산로 CCTV확대, 내년 지하철 100% 설치완료 등
- 25개 자치구도 지역특성에 맞는 방안을 마련하여 무차별 범죄 예방
- * (도봉) 은둔형 사레관리 대상자 모니터링, (은평) 북한산 산책로 안전관리 특별 TF구성, (관악) 여성 1인 가구 안전대책 마련, (강남) CCTV 대폭 확대 설치 등
- 오시장, “단발적 해소 아닌 일상 안전 근본적 재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서울시는 최근 이어지고 있는 강력 범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23일(수) 오전 10시 30분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 현재,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공원 등 치안 취약지역 내 위험 요소를 합동점검하고, 관내 31개 경찰서에서도 살인 예고 게시글 및 흉기 소지자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나, 치안 사각지대를 더 집중적으로 살피기 위해 25개 자치구와 함께 긴급회의를 개최했다고 덧붙였다.

<시, 셉테드 지역 확대, 공원 등산로 CCTV 확대 및 지하철 객실 CCTV 내년 100% 설치>

- 먼저, 서울시는 자치구·경찰청과 협업해 경찰청 지정 범죄예방강화구역 (160개), 여성안심귀갓길(353개) 외 CCTV 미설치 치안 취약지역 전수조사를 실시해 범죄예방환경디자인(CPTED, 셉테드)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 범죄예방환경디자인을 기존 골목길 등 후미진 우범 지역 위주로 적용에서 둘레길·산책길 등 시민들에게 개방된 지역까지 넓힌다.
- 아울러 공원 및 등산로 등을 비롯한 범죄사각지대에 CCTV도 확대 설치해 빈틈없는 치안망을 설계한다는 계획이다. 내년까지 모든 지하철 전동차 객실 내 CCTV를 100% 설치하고, 단순질서 유지 역할을 했던 지하철 보안관 269명을 범죄 순찰과 예방 업무에 투입하기로 했다.
- 또 폭력 및 이상행동 등을 자동 감지하는 지능형 CCTV로 단계적으로 교체해 긴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인 출동 등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자치구와 시 소속기관에서 분리 운영되던 CCTV관제시스템을 통합해 서울시와 경찰·소방 등에서 실시간 확인가능하도록 한다

- 취약지역 순찰과 밤길 귀가 동행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심마을 보안관’을 현재 15개 자치구에서 전 자치구로 확대해 나가고, 시민자율방범 인력도 확대한다.
 - 범죄자와 맞닥뜨린 상황에 대비한 ‘시민행동요령’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 이외에도 경찰 및 정신건강전문요원과 협업해 중증 정신질환자 범죄 위험 판단과 응급입원을 통한 사고예방에도 집중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구·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무차별 범죄 예방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25개 자치구, 현장집중 점검 및 서울시와의 상호협력으로 시민불안 해소>

- 25개 자치구에서도 각 구의 상황에 맞는 무차별범죄 대응 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이날 회의에서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강남구가 25개 자치구를 대표하여 대응 대책을 발표했다.
 - <도봉구>는 정신질환자 집중 사례관리 및 일선경찰 정신응급대응 교육 등 정신질환자 사고 사전예방 방안을 발표하며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은둔형 사례관리 대상자 집중관리 방안을 다른 자치구와 공유하였다.
 - <은평구>는 북한산 산책로가 많은 관내 특성을 감안, 경찰·소방·병원·북한산 국립공원사무소와 협력하여 특별 TF를 구성하는 한편 공원 안전지킴이 60명으로 순찰팀을 운영하여 무장애 숲길, 은평둘레길 등 산지형 공원을 집중 순찰하겠다고 발표하였다.

- <관악구>는 여성 1인 가구 안심장비 홈세트 지원, 범죄 취약 지역 중심의 호신용품 비치, 호신술 교육 프로그램 제공 등 1인가구와 여성 비율이 높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안심골목길 조성 확대 및 이면도로 보안등 조도를 상향하고 생활안전팀을 신설한다.
- <강남구>는 지난 8월 9일 CCTV 관제센터에서 한 남성이 흉기를 가슴에 숨기는 상황을 발견하여 사고 발생 전 검거한 사례를 소개하며, 26년까지 CCTV를 매년 50대씩 총 200대를 추가 설치하고, 2024년까지 AI기반 지능형 선별관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발표했다.
- 정문헌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장은 “25개 자치구가 현장을 더 잘 아는 만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적극 앞장서겠다”며, 서울시와 상호협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시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오세훈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CCTV 확충 등 치안 인프라를 적극 개선하여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할 필요가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사회전반에 나타나고 있는 분노, 좌절에 대한 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는 결국 취약계층 등을 포함한 약자와의 동행 정책이 무엇보다 절실하므로 자치구와 함께 이들을 발굴하고 적극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가자”고 당부했다.

□ 회의사진



오세훈 서울시장의 23일(수) 서울시청에서 열린 '무차별범죄 대응 시·자치구 구청장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